

북한과 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연구(1969-70년)¹⁾

박종철

전북대학교

< 목 차 >

- I. 도입
- II.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북·중 관계의 악화
 - 1. 북·중 갈등의 배경
 - 2.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북·중 관계의 악화
- III.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북·중 관계개선 움직임
- IV.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정상화 과정
 - 1. 최용건-저우언라이 회담 : 소련의 '아시아집 단안전보장구상'에 반대
 - 2. 최용건의 북경 공식방문 : 관계정상화 논의
 - 3. 저우언라이의 평양 정식우호방문
 - 4. 김일성의 비공식 북경방문 : 관계정상화와 김일성 비판 철회
 - 5. 중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북·중의 협력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 북중관계(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혈맹(Normalization), 관계정상화(Blood-forged Alliance), 문화대혁명(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GPCR)),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북한과 중국의 극한 갈등이후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과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관계 악화가 되었으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관계정상화를 모색하였다. 1960년대 말, 중국은 국내적으로 문화대혁명 초기의 극좌적인 오류를 시정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중소국경총돌, 미일안보협력 등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안보위협이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북한과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관계정상화를 달성했다. 관계정상화는 김일성, 최용건, 저우언라이 등의 최고지도자간의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문화대혁명과 관계정상화를 둘러싼 북중관계는 지정

1) 이 연구는 2007년도 일본 입법관대학 코리아연구센터의 '현대한국연구' 연구비에 의해 진행되었음.

학적 측면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동맹이 유지되지만,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병존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I. 도입

이 논문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대혁명 초기 북한과 중국은 극한 이데올로기 갈등을 통하여 관계가 악화가 되고, 1960년대 말의 관계정상화 과정을 거쳐 양당·양국관계가 회복되었다. 양당·양국의 관계정상화는 중·소 군사충돌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즉 북한과 중국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안보협력을 고려하여 봉합된 것이다.

왕타이핑은 문화대혁명시기의 북중관계에 대하여 '1965년 이후의 한 시기 동안, 소련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평가한다²⁾. 양당·양국관계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고, 모든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역사연구가 통제되고 있다.³⁾ 북중관계에 대하여 중국은 공식적으로 냉전시기에는 '혈맹'이라고 규정하고, 탈냉전시기에는 '전통적우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⁴⁾ 따라서 북중 간의 '협력'에 대한 자료는 공개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나, 북중 간의 '갈등'에 대한 자료는 적다. 특히 1950년대 후반의 종파사건, 문화대혁명시기, 한중 관계정상화 과정 등과 같은 북한과 중국의 갈등시기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적다.

이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중국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독일지역의 문건으로 보완하여, 이 시기의 북한과 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립을 시도한다. 중국에서 공개된 자료중에서 유의미한 자료로는 '중국의 조선·한국 정책문건집'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1994) 이 있다. 냉전시기 중국의 한국·조선정책에 대한 공개된 문건,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지만, 이 자료는 중국과 북한의 우호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그 외의 유의미한 자료로는 '저우언라이 외교활동대사기(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저우언라이 연보(周恩來年譜)', 그리고 양당·양국간의 전보, 연합공보, 연설, 중화인민공화국성명 등이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중앙연감', 황장엽회고록, 한국통일부에서 발간한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등을 이용한다.

이상의 기초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소련의 기밀해제 문건을 이용하여 아시아 냉전

2) 王泰平 (1999), p.35.

3)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당·정·군이 분담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 말까지의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류는 '정당간 외교'로써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중앙대외연락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대외공작을 담당하는 직능 부문이다 (歐陽善(2007), pp154-159, 186-196).

4) 북중관계의 냉전시기의 혈맹에서 탈냉전시기의 전통적우호협력에 관한 연구는 박종철a (2007).

사를 연구한 시모토마이⁵⁾, 중국 측의 문건을 이용하여 연구한 냉전시대의 북중관계를 연구한 이종석, 히라이와, 그리고 문화대혁명 초기의 북중 갈등에 대하여 연구한 호리타 등의 연구를 검토한다.⁶⁾

이상의 연구와 자료에는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간의 갈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묘사가 있지만, 관계회복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왕타이핑 등의 중국측의 연구는 중국의 공식역사이므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과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측의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 시기 북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이후 회복되었다’라고만 묘사되어 있다(王泰平 1999).

이 논문은 역사적 사실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통시적 분석법에 따라서 논문을 구성한다. 첫째, 한국전쟁이후 문화대혁명 시기까지의 북한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역사적 구조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북중관계의 역사적 사실을 검토한다. 둘째,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양당·양국의 관계 악화 이후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북중 관계회복의 움직임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중국과 북한의 문헌에서 지적하는 사건에 대한 사례에 국한한다. 셋째, 양당·양국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관계정상화 과정을 구성해 본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북한과 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을 요약하고, 이에 더불어 관계정상화의 함의에 대하여 평가를 시도한다.

II.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북·중 관계의 악화

1. 북·중 갈등의 배경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반도는 관계가 밀접하다. 조선인·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전쟁,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피를 나눈 전우’, 즉 혈맹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의 북중 간의 혈맹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한국전쟁 휴전에서 1955년까지 중국의 대북한 북구지원을 매개로 하여 북중관계는 협력을 유지하였으나⁷⁾, 1956년 중파사건에 대하여 중·소가 공동으로 북한내정에 간섭하여, 북한과 중국 관계에 긴장이 형성되었다. 1957년 11월 모스크바의 각국 공산당대회에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중국의 중파사건 개입에 대하여 사과함으로써 양당·양국의 긴장은 봉합되었다. 그러나 북·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써 모스크바에서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최종 철군에 합의하였

5) 시모토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는 당시의 중소관계를 냉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은 동서냉전과 중소냉전이라는 두개의 냉전구조에서 전략적 선택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下斗米伸夫 (2004)).

6) 아키즈키 노조무(秋月望)는 북중관계에서의 화이스시스템의 현재성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秋月望 (1999),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는 냉전시대의 북중관계를 안전보장, 이데올로기, 전통적 관계, 경제적 관계라는 4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平岩俊司 1999).

7) 한국전쟁 정전이후 중국의 대북지원에 관한 연구는 박종철b (2007), pp1-18.

다8). 김일성입장에서는 중국의 내정간섭이라는 대국주의적 태도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요구하게 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에 따른 경제재건인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북한정부는 동유럽, 극동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해외동포 및 전쟁고아 귀국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재중조선인을 둘러싸고 북중은 갈등하였다9). 북한과 중국은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10)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은 1961년 소련, 중국과 각각 군사동맹성격의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하,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냉전말기 북소우호조약은 폐지되었지만, 북중우호조약은 현재도 유효하다. 북중우호조약은 현 체제유지의 근간이 되는 조약이므로, 현재의 북·중 관계는 ‘1961년 체제’라는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북중갈등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소논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에 대응한다는 ‘민족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하에 북·중은 공조하였다. 1956년에서 1964년까지의 중소분쟁에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면서11) 동시에 주체노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가 실각하면서 등장한 소련 신지도부에 대하여 북한과 중국은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었다. 브레즈네프 신지도부에 대하여, 북한은 북·소의 전통적인 군사·경제적 원조에 기반을 둔 연대의 회복을 희망했지만, 중국은 ‘흐루시초프 없는 흐루시초프주의(Khrushchevism without Khrushchev)’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 1960년대 중반 북중관계는 소련 신지도부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 문제 등에서 미묘한 갈등을 겪었다. 중국은 브레즈네프를 흐루시초프와 마찬가지로 수정주의자로 규정하였지만, 북한은 안보·원조 등의 측면에서 소련과의 관계회복을 희망하고 있었다.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후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핵기술 이전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 역시 북중 간의 간극을 벌이는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중소분쟁의 틈새에서 북한은 1966년 8월 ‘자주노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주체적 외교의 폭을 넓혀 비동맹 운동에도 참여하였다12).

1965년 2월 미국은 북베트남 폭격을 개시하였고, 한국군이 남베트남에 파병되었고, 6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어 북한의 안보위협은 증가되었다. 중국정부는 2월에 ‘전세계는 베트남과 인도차이나를 지지하라’를 발표하였으나, 중국은 이러한 혁명적 수사와는 달리 이 시기 베트남 혁명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중소분쟁을 중재하려고 노력한 호치민은 중소분쟁과정에서 모스크바와 갈등 관계를 겪었으나, 베트남에서 확전이후 베트남과 소련관계는 개선되었다. 1965년 2월 코시킨은 하노이, 북경, 평양의 방문을 방문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관계개선과 베트남 전쟁의 공동대응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베트남-소련, 북한-소련 관계는 개선되었다. 코시킨과 모택동의

8)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에서의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는 박종철 (2008), pp. 193-236이 있고, 이에 대하여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에서는 김일성의 철군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歐陽善 (2007), p.21.

9) 재중조선인에 대한 김일성주의에 대한 사상사업과 중국동북의 재중조선인중의 많은 엘리트 등이 귀국하면서 북한과 중국은 이를 둘러싸고 갈등하였다고 한다 歐陽善(2007), p.21.

10) 1961년의 북중우호조약 당시의 저우언라이의 우호적인 태도는 다음과 같다 中國國家博物館編著 (2006年), p. 222-223.

11) 이에 관한 중국의 이론가 吳冷四의 『十年論戰1956-1966中蘇關係回憶錄』。(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9年)이 있다.

12) 서대숙(2000), pp. 110-111.

회담에서 모택동은 소련의 ‘수정주의적 자세’를 구실로 중소화해는 무리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중소협상은 결렬되었다¹³⁾. 북한은 베트남전쟁에 대하여 “전세계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국의 대소과 대월정책에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관계는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변화에 따라서 북소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양국관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김일성수상은 연례행사처럼 방문하던 중국방문을 회피하기 시작했고, 북중 양국의 고위대표단의 상호방문과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2.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북·중 관계의 악화

1966년 마오쩌둥의 지도하에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 본격화되었고,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대하여 황장엽은 ‘1964년부터 로동당은 중국공산당과 분리과정을 겪고 있었고, 소련공산당에 접근했다. 북한 지도부는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의 좌경노선과 내부 정치권력투쟁이 혼합된 형태라고 인식했다’라고 평가한다¹⁴⁾. 동독의 정보보고서는 이 시기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독자적인 조선의 지위”나 “주체사상”의 형태로써 민족주의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조선지도부는 쿠바, 베트남,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과의 연대를 중시하였고, 특히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¹⁵⁾. 중국은 북한과의 원조 협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조도 급감되었고,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접촉도 거의 없어졌다¹⁶⁾.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소련과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원조를 중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이 시기 북한은 군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이탈해서, 소련권역에 편입되었다’¹⁷⁾라고 평가하고 있다. 1966년 5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일성과 브레즈네프는 비밀회담을 갖고, 군사적·경제적 원조와 문화대혁명, 그리고 중소관계를 논의했다¹⁸⁾. 문화대혁명과 중소분쟁을 둘러싼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북한과 소련은 전략적으로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다.¹⁹⁾

13) 김창순 편 (1978), pp.112-113.

14) 황장엽 (2006), pp.174-175.

15) 국제교류과 1966년 12월.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독일민주공화국 1968년 3월 23일; 야르크(1등 서기관) 1969년 2월 6일.

17) 평양주재무관 1967년 9월 27일.

18) 라리사 자브로우스카야 (2000), p.273; 김창순 편 (1978), p.114.

19) 1961년에서 1984년까지 북소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다. 1961년 7월(모스크바) 김일성-호루시초프는 북소 우호조약의 체결, 1984년 5월 15일-7월1일(모스크바)의 김일성-체르네프는 북소관계정상화를 위한 방문이었다. 1956-64년 중소분쟁시기 소련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소련기술자와 장비를 철수하였다. 그러나 1966년 조소기술경제지원협력을 맺고, 1966년 3월에는 소련공산당 제23차 대회에 중국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북한대표는 참석했다.

김계동은 북한이 친소노선을 걷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미·한의 베트남전 참전 및 한·일 국교정상화, 둘째, 호루시초프의 실각 및 브레즈네프, 코시킨 등 새로운 소련 지도부의 등장과 이에 따른 대남 군사협조 및 경제지원의 증가, 셋째, 중국의 경제원조능력의 한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 넷째, 홍위병들의 대대적인 김일성 비난 등 이다(김계동 2002, 14).

1966년 10월 5일에서 12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홍위병의 김일성 격하에 대하여 교조주의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로동당의 주체적 노선을 내외에 선포했다²⁰⁾. 이상과 같이 북중갈등이 격화됨에 따라서 양국의 대사는 소환되어 외교관계가 악화되었고, 판문점 정전위원회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이 정전회담에서 철수하고²¹⁾ 양국 간 국경에서는 총격전도 있었다. 북한 회령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의 지원군의 묘석을 부수고, 주변 나무 등을 파괴하기까지 하였다라는 주장도 있다²²⁾.

북중관계는 1961년의 북중우호조약의 체결에 따라서 공식적 동맹이었지만, 이 시기의 북중관계는 실제적(de facto) 적대관계였다. 문화대혁명 초기의 북중관계는 ‘적대적 동맹’(The Alliance despite Antagonism)상태였다. 홍위병들은 김광협에 의한 쿠데타 등의 허위사실을 대자보를 통하여 유포시켰다. 1967년 2월 4일 홍위병 벽보에서는 조선인민군이 김일성을 체포하였다’라고 주장했으며, 19일에는 ‘김일성은 수정주의자이며 흐루시초프의 제자이다’라고 격하하였다. 또한 재향 중국인민지원군 명의의 벽보에는 ‘김일성은 월맹에 지원병 파견을 거부함으로써 월남인민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허위사실로 북한을 중상비방하였다²³⁾. 1966년에서 69년 사이 북중간의 상호축전을 분석해 보면, 1967-69년 3년간은 양측의 당·정 명의의 전보를 보내지 않고, 김일성 수상과 저우언라이 총리의 명의로 축하전보를 교환했다. 3년간의 축하 전보는 다른 해에 비하여 매우 간략하다.²⁴⁾

황장엽은 이 시기 북한 정치에서도 역시 극좌적인 정치형태를 보였다고 한다. ‘김일성은 1967

20) 황장엽 (2006), p.175.

21) 堀田幸裕 (2002), p.4.1966년 10월의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는 외국공산당과 로동당의 대표단을 초청하지 않기 위하여 대표자회의라는 명칭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1966년 10월, 제229회 판문점 정전회담에 중국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부터 인민일보와 로동신문 간에는 상호기사 교환이 중단되었다.

22) 歐陽善(2007), p.22.

23) 『공산권문제연구소』(1968), pp.248-249, 이러한 홍위병의 중상비방과는 달리 북한은 1964년 8월 통킹만 사태가 발상하자마자 즉시 미국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65년 1월 한국군 비둘기부대의 베트남 파병이 결정되자, 북한은 군중 대회 등을 통하여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였다. 북한도 베트남 전쟁에 인적, 물적 기여를 하면서, 남북은 베트남 전선에서 충돌하였다.

24) 중국측 축하 전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67년-1969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 대한 축하전보는 저우언라이 총리와 김일성 수상의 명의로 되어있다. 이 3년을 제외한 다른 시기는 로동당과 공산당 명의로 건국일에 축하전보를 발송했다. 즉 1966년 9월 이전에 북중은 극한 갈등상태에 있었고, 1969년 9월 이후 북중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측 축하전보는 다음과 같다. 「我党政領導人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18周年致朝党政領導人的賀電」(1966年9月8日), 「周恩來總理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19周年致金日成首相的賀電」〈1967年9月8日〉, 「周恩來總理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20周年致金日成首相的賀電」〈1968年9月8日〉, 「周恩來總理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21周年致金日成首相的賀電」〈1969年9月8日〉, 「我党政領導人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22周年致朝党政領導人的賀電」(1970年9月8日). 북한측 축하전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朝党政領導人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17周年致我党政領導人的賀電」(1966年9月30日), 「金日成首相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18周年致周恩來總的賀電」(1967年9月30日), 「金日成首相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19周年致周恩來總的賀電」(1968年9月30日), 「金日成首相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20周年致周恩來總的賀電」(1969年9月30日), 「朝党政領導人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21周年致我党政領導人的賀電」(1970年9月30日).

년 5월 25일 ‘5.25교시’를 지시했다. 문제는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이론 투쟁이었는데,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은 문제들이었다. 특히, 더욱 계급주의적인 입장에서 독재를 강화하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심화시키려는 통치 집단의 요구와, 계급투쟁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인텔리 사이의 대립이었다. 김일성은 소련의 우경수정주의와 중국의 좌경모험주의를 모두 반대하면서 중간입장을 취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모방했다²⁵⁾. 이 시기의 노선투쟁에서 김일성의 만주파가 갑산계를 숙청하여, 대내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노선을 강화되었다.

중국에서는 1950년 후반의 반우파투쟁과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북중우호의 상징인 중국 내 조선인 문화에 대한 문화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중조선인 군인, 정치인, 엘리트 등의 지식인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하였다. 조선인들은 ‘조선 특무(스파이, 간첩)’라는 누명을 쓰고 탄압을 받았고, 일부 재중조선인들은 조국(조선)으로 탈출(망명)을 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 조선인의 민족문화 파괴는 이 시기에 가장 극심하였다²⁶⁾. 문화대혁명 초기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양당·양국 지도자 간의 갈등, 이데올로기적 차원, 군사와 원조 문제 등의 국가이익의 차원 등 전 분야에 걸쳐 갈등이 증폭되었다.

Ⅲ.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북·중 관계개선 움직임

문화대혁명 초기 극단적인 갈등과 더불어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북중간의 미묘한 상호 접근이 있었다. 먼저 문화대혁명이 최고조인 순간의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면, 김일성과 저우언라이 간에 구두메시지를 통하여 핫라인이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²⁷⁾. 1967년 10월 24일, 저우언라이 총리는 모리타니아 이슬람 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Mauritania) 의 모크다르 울드 다다 (Mokhtar Ahmed Ould Daddah) 대통령이 중국, 북한 방문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였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다다 대통령을 북경공항에서 송별하면서, 3가지 사항을 구두로 김일성과 시하누크 친왕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였다. 첫째, 북한거주 화교들의 반복적 활동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국내법을 항상 준수할 것을 교육할 것이다. 둘째,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의 활동에 약간의 편향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셋째, 중국의 북한과 캄보디아 정책은 불변하며, 언제나 북한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지지한다²⁸⁾.

김일성은 북한 방문을 마치고 북경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다다 대통령를 통하여 저우언라이에게 구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10월 27일, 북경공항에서 다다 대통령은 4개항의 구두메시지를 저우언라이에게 전달하였다. 첫째, 북한의 대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동지와 깊은 우의를 나눈 바 있으며, 공동투쟁 속에서 쌓

25) 황장엽 (2006), p.179.

26) 염인호 2006; 김경일 (1994), pp.4-5.

27) 歐陽善 (2007), p.22.

28) 『周恩來年譜1949-1976 (下)』 (1997), pp.195-196.

아 온 우리의 우의를 매우 귀중히 여긴다. 셋째, 서로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엄중한 것이 아니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나는 만약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 중국이 과거 여러 차례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²⁹⁾. 김일성은 저우언라이의 화해 제스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1968년 북미간의 군사적 대립이 따라서 북한의 안보위협은 증가하였다. 1월 21일 북한 124특수군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1월 23일, 북한인민군 해군은 원산부근 해역에서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82명의 승무원을 구류하였다. 미국은 승무원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제7함대 구축함 2척을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하였다. 또한 유엔에서 북한의 행위를 제소하였다. 푸에블로호 나포를 둘러싸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침공을 준비한 것이다. 북한은 미군에 대하여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에 대한 공개 침략이며 북한인민은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북미간의 대립에 대하여 1월 28일 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성명(中華人民共和國聲明)”을 발표하여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다³⁰⁾. 비록 중화인민공화국성명에서 미국 비난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쳤지만, 소련에 대항하여 중미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던 시점에서의 북한지지라는 함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 왕타이핑은 북중 간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평가했다³¹⁾. 또한 4월 15일 북한공군이 미군 고공정보정찰기 EC-151기를 격추하였는데,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다³²⁾.

이러한 군사적 위기에 따라서 북한은 공업발전의 중요자원을 군사부분으로 전용하였다. 1968년 전반기 공업은 기존 용량의 50-60%만 가동되었고, 국민경제는 기밀사항으로 처리했다. 북한 주민들은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동원되었다³³⁾. 이 시기 북한의 안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국내적으로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북한으로써 이런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협조노선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3월 4일 중국 대외무역부 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통상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7월 1일 로동신문에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국인들과 하나의 전선에 싸울 것이다”라는 사설을 게재했고³⁴⁾, 11일 ‘북한의 긴장에 대하여, 북한과 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자’를 게재하는데 로동신문은 중국에 대하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³⁵⁾.

1968년 8월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였고, 브레즈네프는 제한주권론이라는 독트린(Brezhnev Doctrine)을 발표하였다. ‘사회주의 형제국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전체의 대의가 중요하며 이는 개별국가주권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프라하 침공을 정당화하였다. 중국은 8월 23일 인민일보를 통하여 소련의 체코 침공을 맹비난하였으나, 북한 공식정부 경로를 통하여 소련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³⁶⁾. 그러나 전바오도의 군사충돌에서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1950

29) 『周恩來年譜1949-1976 (下)』 (1997), pp.195-196.

30) 『인민일보』 1966년 1월 29일.

31) 王泰平 (1999), pp.35-36.

32) 『북한총람1945-1982』 (1994), pp.361.

33) 야르크 1등 서기관 1969년 2월 6일.

34) 『북한총람1945-1982』 (1994), p.361.

35) 堀田幸裕 (2002), p.9.

36) 김창순 편 (1978), p.154.

년 후반부터 중소 국경에서의 일상화된 충돌은 구조화되어 있었고, 1969년 3월 전바오-다만스키(Damanski-Zhenbao Island)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표출되었고, 8월에는 신장-카자흐스탄 국경의 군사충돌로 확대되었다. 3월 21일 코시킨 수상은 중국공산당 수뇌부에 전화를 하여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중국측은 거절하였다³⁷⁾. 중국은 “소련은 새로운 제국주의이며, 지도부는 새로운 짜르”라고 비난했다. 4월 중국공산당대회에서 린바오는 이 섬이 중국영토라고 선언하고, 병사들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했다³⁸⁾. 소련은 극동 및 몽골의 주둔 병력을 증가하고 군관구를 신설하여 대중국 전비를 강화하였으며, 중국 역시 국경지역 군구의 병력을 증강하였다.

5월 14일,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 포드고르니가 북한을 방문했으나, 북한은 전바오-다만스키 사건에 대한 소련의 반중국 전략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소련의 프라하 침공에 대하여 북한은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였지만, 전바오-다만스키 무력충돌 이후, 북한은 소련의 반중 캠페인에 참가하지 않았다. 전바오섬에서 중소 군사적 충돌직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국제회의에서 브레즈네프는 ‘아시아집단안보구상’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제3세계 국가들과 ‘평화 · 공존 · 협력’이라는 명칭의 양국간 관계를 체결하여, 소련과의 양국간 관계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간안전보장구상’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소련의 중국포위로 인식하였다.³⁹⁾ 이상의 6월 국제회의에서 ‘형제당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며, 조선로동당은 ‘모든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불참하였다. 북한의 불참 결정은 이 대회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던 중국에게 북중관계 개선의 명분을 제공하였다⁴⁰⁾.

1969년 2월 취임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월남전 개입 종결과 중국과의 화해를 추진할 것을 공약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필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5대 강국 중의 하나이고 소련과의 테탕트를 이루는데 중미화해가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닉슨은 베트남에서의 명예로운 철군을 위하여, 아시아안보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역할과 중미화해를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일본의 아시아안보에서의 역할 증대를 미일제국주의의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패리기’ 전략으로 인식했다. ‘닉슨 독트린’과 일본 사토우 수상의 방미기간의 ‘닉슨 · 사토우 공동 성명’(연합공보)에서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하여 북, 중은 위협으로 인식했다. 특히 중국은 ‘연합공보에서는 중화민국은 일본 안전보장의 최우선 요소이고, 북한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불가결의 요소’라고 발표한 대목을 주목하였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법제국 국장은 자위대를 남한에 파견하는 문제를 언명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활동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왕타이핑은 주장하고 있

37) 寺谷 (1983), p.203.

38) 下斗米伸夫 (2005), pp.163-164.

39) 소련의 동유럽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브레즈네프는 ‘동아시아집단안전구상’을 제안하였다. 양국 관계의 결정내용은 상대국에 따라 다양하며, 경제문화관계의 확대에 중점을 둔다고 하지만, 실제로 군사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 관계는 1971년 아랍연합(후에 이집트, 그 후 1976년 폐기)과 시작되어 인도, 이라크, 소말리아(1977년 폐기), 앙골라, 모잠비크, 터키, 베트남, 에디오피아, 아프카니스탄, 남예멘, 시리아, 콩코 등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40) 이종석 (2000), p.250.

다⁴¹⁾. 이후 일본자위대와 한국군은 교류하였다. 1970년 6월 미일안보조약의 자동연장 등 동아시아 안보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한미일의 유사군사동맹의 움직임은 북한과 중국의 협력의 동인이 되었다.

IV.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정상화 과정

1. 최용건-저우언라이 회담 (1969년 9월) : 소련의 ‘아시아집단안전보장구상’에 반대

1969년 4월, 중국공산당 제 9차 전당대회의 정치보고에서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한다고 선언하였다. 중국지도부는 문화대혁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혼란을 수습하려고 노력하였다. 문화혁명의 좌경적 오류가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간의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이라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추진되었다. 1969년 9월 베트남혁명의 지도자 호치민이 사망하여 사회주의 각국의 정상들은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코시킨 수상은 장례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북경을 방문하였다. 코시킨, 저우언라이 회담을 가졌으나 중국은 브네즈네프의 ‘아시아집단안전보장구상’을 반대하였다. 최용건(최고회의 상임위원장, 노동당 부위원장) 역시 호치민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북경을 경유하였다. 10일, 저우언라이 등 중국지도부가 최용건을 인민대회당에 초청하여 한 차례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소련의 ‘아시아집단안전보장구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중관계정상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되었다⁴²⁾. 또한 저우언라이는 최용건에게 양당·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김일성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⁴³⁾. 중국은 베트남이 인도차이나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확전에 따라서 친소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베트남에 군사적 원조를 하고 있었다. 남·북한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군사력을 파견하여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경유지인 중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즉, 소련, 북한, 베트남의 연대는 소련의 중국포위전략에 동조하는 듯한 자세가 되었다. 이것은 문화대혁명 시기 북중관계 악화의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 그런데 9월 최용건-저우언라이 회담에서 북한이 소련의 ‘아시아집단안전보장구상’을 반대하면서 북한은 중국에 관계정상화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최용건, 저우언라이 회담 이후 중국은 베트남 전쟁을 위하여 북경을 경유하는 북한 군부지도자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등 지원하였다.

41) 王泰平 (1999), p.36.

42) 王泰平 (1999), p.36.

43)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93), p.539.

2. 최용건의 북경 공식 방문(1969년 10월) : 관계정상화 논의

중국정부는 원래는 중국건국 20주년 행사에 외국대표단의 초청을 고려하지 않았다. 문화대혁명 상황에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몇 나라만이 주동적으로 중국건국기념행사에 참석을 표시하였다. 9월 30일, 중국지도부는 국제정세와 북중 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오후 3시 20분, 중국정부는 긴급하게 북한대표단의 초청을 결정하고, 초청전문을 발송했다. 공식적으로 북한을 초청한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 전문을 관계정상화의 중요한 메시지로 인식하였고, 당일 오후 6시 25분, 최용건이 인솔하는 북한정부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는 전보를 회신하였다. 당일 밤 11시 30분, 대표단은 북경 공항에 도착하였고, 저우언라이 등의 최고지도부가 수도공항에서 북한 대표단을 영접하였다. 중국지도부의 드라마틱한 북한 초청결과와 초청장 발송에 대하여 북한 지도부는 전격적으로 응답하여 관계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미데탕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소련의 몽고, 베트남, 북한, 우크라이나-신장 국경 등에서의 전방위 포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통적 혈맹으로의 복귀가 용이한 북한은 선택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써도 남북한의 베트남전쟁에서 대규모 군사대결, 한미일 유사동맹 등의 남북 극한 대치상황에서 중국의 지지는 절실했었다.

10월 1일, 중국건국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천안문 행사에 중국지도부는 최용건을 초청하였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천안문 성루에서 최용건 위원장과 회담하였다. 마오쩌둥은 “…… 현재 미국과 일본은 대만, 남조선과 관계가 밀접하다. 그들은 당신들을 공격하려 한다. 그것은 단순하게 당신들만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중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한다…… 우리의 목표는 똑같다……”라고 말했다. 국제정세의 압박에 의하여 마오쩌둥은 북중화해를 제의한 것이고, 이 발언은 북중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초라고 중국문헌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 대하여 현실주의적이고 지형학적 고려에 의하여 접근한 것이다. 저녁, 저우언라이는 최용건이 이끄는 북한대표단을 위하여 환영연회를 열었다 44). 당일 저우언라이의 일정은 오후, 대표단 환영회에는 북한만을 초청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45).

10월 2일, 건국 20주년 축하 연무회에서는 북한대표 최용건을 먼저 소개하고, 베트남, 알바니아 등의 대표단을 소개했다 46). 중국지도부는 다시 한번 북한을 중시하는 태도를 다른 사회주의 형제당에게 과시한 것이다. 저녁 7시, 저우언라이와 최용건은 북중의 양당·양국관계 대하여 회담을 거행했다 47). 중국 측은 북한과의 전면적 관계 개선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한 것이다. 3일 오전, 북한대표단이 귀국할 때 공항에서는 저우언라이, 예젠잉, 리셴넨, 황영생(黃永勝) 등 중국 최고지도부가 배웅을 하였다. 중국지도부는 북중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또다시 김일성에게 전달할 것을 최용건에게 부탁하였다 48). 최용건이 이끄는 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북

44) 王泰平 (1999), p.36;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93), p.542.

45) 平岩俊司 (1999), p.129. 당일 오후 저우언라이의 일정은 전쟁 중인 베트남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지는 것이 있었다.

46) 平岩俊司 (1999), p.129.

47) 周恩來年譜1949-1976 (下) (1997), p.325; 周恩來總理同崔庸健委員長舉行會談 1969년10월2일.

중정상회담은 재개되었고, 이것은 양당·양국관계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970년 10월 1일 전후의 양당·양국 간의 전보교환, 인원교류 등을 분석하면, 질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9월 9일, 북한건국기념일에 중국 측은 저우언라이 총리명으로 김일성 수상에게 전보를 보냈고 시에후지 부총리가 주중 북한대사관에 방문했을 뿐이다⁴⁹⁾. 그러나 10월 8일,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수소폭탄실험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고⁵⁰⁾,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18주년을 기념행사에서는 양당·양군·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중국의 대문호 귀모뤄가 북한대사관의 연회에 참석하고, 극영화 ‘전우’를 감상했다⁵¹⁾. 북한의 당 기관지에는 중국인민지원군참전 18주년을 기념하는 사실이 게재되었다. 같은 날 평양시내의 북중우의탑에 정준택 부수상 등 정·군의 지도자가 헌화했다. 주중 북한대사관에서도 기념연회가 열렸다⁵²⁾. 즉 해방군과 인민군의 관계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저우언라이의 평양 정식우호방문(1970년 4월)

문화대혁명 초기에 소환되었던 대사가 3월 복귀했고,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 중국 측 중국인민지원군대표도 복귀하였다. 저우언라이의 방북 직전에 대사관과 판문점 대표부가 정상화된 것이다. 마오쩌둥과 최용건 회담 정신에 근거하여 김일성 수상은 저우언라이 총리를 초청하였고, 저우언라이 총리는 1970년 4월 5일에서 7일까지 북한을 정식우호 방문하였다. 중국 총리급 인사로서는 12년만의 공식 방문으로, 북한은 대규모 대중을 동원하는 등 중국대표단을 환영하였다⁵³⁾. 4월 5일 오전, 김일성 수상, 최용건 위원장 등은 저우언라이가 이끄는 중국대표단을 평양공항에서 마중하였다. 김일성은 환영연설에서 ‘양국 인민의 피로 맺은 우의와 미일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연설하였다⁵⁴⁾. 이 연설에서는 중국의 당·정에서의 마오쩌둥의 지도적 지위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도 빠져있고, 수정주의 소련을 비판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마오쩌둥에 대한 섭섭함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환영식 연설에서 ‘중조 양국은 역사적으로 순망치한의 이웃 나라로서 공동의 전투적 우의’를 연설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의 아시아인으로 아시아인을 때리기 전략에 대하여 중국과 조선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용건 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성립 20주년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여, 그 방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⁵⁵⁾. 김일성과 저우언라이는 공항의 환영식 연설에서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수정주의 소련 문

48) 이종석 (2000), pp.250-251.

49) 「謝富治副總理在朝鮮駐華臨時代辦舉行的招待會上的講話」 1969년 9월 8일; 「周恩來總理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21周年致金日成首相的賀電」 1969년 9월 8일.

50) 『북한총람1945-1982』 (1994), p.361.

51) 平岩俊司 (1999), p.130.

52) 堀田幸裕 (2002), p.9.

53)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93), p.551.

54) 「金日成同志在平壤機場歡迎儀式上的講話」 1970년 4월 5일.

55) 「周恩來總理在平壤機場歡迎儀式上的講話」 1970년 4월 5일.

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4월 5일 오후, 김일성은 내각건물에서 저우언라이를 접견하였다. 저우언라이는 예정보다 평양방문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은 중국대표단의 북한방문이 연기된 것에 대한 저우언라이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안해하지 마라. 비록 좀 늦었지만, 때가 좋다. 좀 일찍 왔으면, 추워서, 환영군중들이 추위에 떨었다”라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방문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저우언라이는 “양국지도자가 만나서 문제를 확실히 말해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큰 틀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김일성은 환영연회에서 특별히 모든 음식을 북한 특색의 단고기(개고기)로 준비하여 중국대표단을 환영하였다⁵⁶).

연회에서는 김일성이 “조선전쟁과 전후 복구과정에서 중국인민의 지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미국의 두 개의 중국 정책을 비난하여, 중국과의 공동 이해를 설명했다. 또한 미·일 제국주의를 비난하며, 월남과 쿠바에 대해 지지한다”라고 연설하였다⁵⁷. 저우언라이는 ‘대만이 일본안보의 최우선의 요소이고, 조선은 일본안보에 불가결의 요소이고, 인도차이나에 대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미일 간의 안보대화’를 비난했다. 또한 저우언라이는 일본은 미제국주의를 돕는 아시아 국가로서, 미국의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때리기 전략에 동조한다고 미·일제국주의를 비난하였다. “미국에 대항하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전쟁을 지지하고, 캄보디아의 시하누크 친왕을 지지한다. 마오쩌둥이 지도하는 무산계급 문화대혁명때문에 중국 국내정치가 전제정치로 발전하고 있고, 마오쩌둥 사상으로 중국인민이 무장되어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더불어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한다.”라고 연설했다⁵⁸. 미·일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라는 두 개의 적을 모두 비난하였다. 그리고 저우언라이는 “미일 반동파는 중국인민, 조선인민, 인도차이나반도인민을 중심으로 아시아인민에 대하여 군사결합을 강화하고 있다……공동의 이해와 안정을 위하여 우리 양국 인민은 단결해야 한다. 미일 반동파의 새로운 침략과 전쟁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조인민은 반드시 긴밀하게 단결해서, 공동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적에 대항해야 한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중조 양국 간의 전우애와 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고 연설했다. 그리고 저우언라이는 미일에 대항하여 ‘괴로서 맺어진 군사적 우의와 마오쩌둥-린바오 주도의 중국국내정치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을 강조하였다⁵⁹.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만약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다시 모험적인 침략전쟁을 벌인다면,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철저히 적들과 전투를 벌임으로써 조선인민은 중국인민과 같이 사회주의 승리를 실현한다……”라고 연설했다⁶⁰.

평양홍부초대소(平壤興夫招待所)⁶¹에서 열린 6일 오전 9시 25분의 제2차 회담과 3시 55분의 제3

56) 中國國家博物館 (2006), pp.223-224; 「周恩來總理在平壤機場歡迎儀式上的講話」 1970년 4월 5일, 「周恩來總理在金日成首相舉行的歡迎宴會上的講話」 1970년 4월 5일.

57) 「金日成同志在歡迎周恩來總理的宴會上的講話」 1970년 4월 5일.

58) 「周恩來總理在金日成同志舉行的歡迎宴會上的講話」 1970년 4월 5일.

59) 저우언라이 평양군중에게 한 연설 1970년 4월 7일, “...마오쩌둥 동지를 수령으로 하는 중국인민과 린바오 동지가 보좌하는 중국공산당은 제국주의와 현대수정주의가 자본주의의 부활을 기도하는 음모를 분쇄하고,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 승리의 진전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조선 측은 축하했다 ...”.

60) 王泰平 (1999), pp.37-38.

61) 김일성 관련 ‘1호행사’에서 북한당국은 외국 국가원수를 위하여 홍부초대소를, 외국 총리급인사를 위하여 모란봉초대소를 배정하였다(이한영 (2004), pp72-73). 즉 1970년 4월의 저우언라이의 평양방문에 김

차 회담, 그리고 저녁 8시 40분의 제4차 회담에서 김일성, 저우언라이, 최용건 등은 국제정세와 북중관계를 논의하였다. 7일 오후, 중국대표단은 북한 방문을 마치고 북경으로 귀국하였다⁶²⁾. 공항에서 김일성은 북중의 단결은 미일제국주의에 타격을 주었다고 연설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저우언라이에게 마오쩌둥과 당·정 등에 안부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⁶³⁾. 이에 대하여 저우언라이는 짧은 방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⁶⁴⁾. 김일성, 저우언라이는 4차례의 회담을 하면서 총 14시간을 회담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대표단은 한반도, 동북아, 국제정세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1965년 중국국내 상황때문에 북중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이해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단결하며 적에 대항할 것을 강조하였다. 문화대혁명 초기 중국국내외에서의 반북·반김일성의 행위에 대하여 김일성이 이해를 한 것이었다. 9일, 연합공보를 통하여 북중관계를 발표하였다⁶⁵⁾. 양측은 회담내용에 만족했고, 연합공보에서는 제국주의와 현대수정주의에 대해 비판, 마오쩌둥과 린뱌오가 주도하는 문화대혁명을 지지하였고, 중소분쟁상황에서의 현대수정주의를 비판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국제문제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조선문제 등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공동으로 비판했다.⁶⁶⁾ 현대수정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중소분쟁에서 북한은 다시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저우언라이는 반복적으로 김일성이 지도하는 로동당에 대한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문화대혁명 당시의 김일성 비판을 철회한 것이다. 그리고 북중관계정상화는 혈맹의 복귀와 함께, 북한의 대외적 자주성과 주체를 인정했다. 저우언라이-김일성 회담의 패턴은 상호 방문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치 외에 다양한 화제를 통하여 교류를 하는 것이었는데, 1970년 4월의 저우언라이의 평양 방문에서 두 지도자 간의 인간적인 교류도 역시 주목할 만하였다.

국경문제도 다시 처리되기 시작하여, 1969년 12월 29일부터 1970년 1월 29일까지 북·중 압록강 및 두만강 하천운행협조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었다⁶⁷⁾. 1970년 4월, 저우언라이의 방문 시에 하천의 국경문제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호리타는 백두산 정상의 국경도 다시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⁸⁾.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양당·양국의 소원했던 교류관계가 저우언라이의 평양 방문 이후, 각각 정부대표단, 경제대표단, 군사대표단, 친선

일성은 북중관계정상화, 그리고 김일성과 저우언라이의 우의를 고려하여 평양의 군중대회, 흥부초대소, 개고기 등의 극진한 대접을 하였다. 1958년 3월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저우언라이는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설립하였는데, 저우언라이 사후 1979년 저우언라이 부인 덩잉차오가 흥남을 방문하였을 때, 5월 31일 김일성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저우언라이 동상을 세웠다. 이것은 북한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 동상이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관계에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의 우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62)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93), p.551.

63) 「金日成同志在平壤机场歡送儀式上的講話」 1970년 4월 7일.

64) 『中朝兩党, 兩國領導人講話匯編』 (1991년 5월), pp.225-226.

65) 『周恩來年譜1949-1976 (下)』 (1997), pp.360-361.

66) 중국측에서는 지펑페이(姬鵬飛), 양더중(楊德中), 자오커창(曹克強), 한서(韓叙), 리윈훤(李云川)이 참석했고, 북한에서는 최용건, 김일, 박성철, 허담, 김영남, 현준국이 참석했다.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聯合公報」 1970년 4월 7일.

67) 『조선중앙연감』 (1970), p.378.

68) 堀田幸裕 (1999), p.8.

대표단, 과학기술협조대표단 등을 교환하며 우의를 복원해 나갔다⁶⁹⁾. 1969년 북중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여, 1970년 4월 이후 양국의 당·정·군의 교류는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4. 김일성의 비공식 북경방문(1970년 10월) : 관계정상화와 김일성 비판 철회

10월 8일에서 10일, 김일성이 북경을 비공식 방문하여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등과 회담을 가졌다. 1964년 11월이후, 6년만의 김일성의 방중으로 김일성의 문화대혁명에 있었던 양금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8일 오후 3시 50분, 저우언라이는 김일성을 수도공항에서 맞이하였다. 오후 8시 30분에서 10시 50분까지 마오쩌둥, 저우언라이는 조어대 국민관에서 연회를 개최하여 김일성 등의 북한 대표단과 회견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에서의 ‘극좌파’의 일련의 반복·반김일성 행동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철회했으며, 북중은 양당·양국문제를 비롯해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하였다⁷⁰⁾. 양당·양국의 통합은 중소관계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고려하여 중국 측에서 북한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10월 9일 오전 10시, 조어대 18호루에서 저우언라이와 김일성은 회담을 거행하였다. 10월 10일 오전 7시 4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조어대에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는 제2차 회담을 거행하였다. 저우언라이와 김일성 회담에서는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각국공산당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저녁 7시에서 8시 40분 사이,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다시 만났다. 8시 40분부터 연회가 거행되었다. 10월 10일은 조선로동당 창건 25주년 기념일로 양당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월 11일 오전, 저우언라이는 조어대에서 공항까지 김일성과 동행하였고, 공항에서 북한대표단을 송별하였다⁷¹⁾. 이 회담은 중소분쟁에 대하여 김일성이 중국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오쩌둥 역시 북한의 주체적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의 비공식 방중 1주일 후, 1970년 10월 17일, 북한의 정준택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북경을 방문하였다. 정준택 부수상과 리선넨 중국 부총리는 ‘중국이 조선에 경제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데 관한 협정’과 ‘1971년-76년의 상호 주요 화물의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북중관계 회복을 계기로 1960년대 후반에 중단되었던 대북원조가 재개되었다. 이는 문혁이후 양국 간에 처음으로 체결된 원조에 관련된 협정이다⁷²⁾.

10월 25일, 중국은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규모 친선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고, 북한은 대규모 환영행사로 이들을 맞이했다⁷³⁾. 리선넨 부총리가 북경의 북한대사관의 연회에 참석하였다⁷⁴⁾.

69)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1994), pp.1791-1881.

70) 『周恩來年譜1949-1976 (下)』 (1997), pp.399-400.

71)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93), pp.566-567.

72)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93), p.568.

73) 「李先念副總理在朝鮮駐華大使玄峻極舉行的紀念中國人民志願軍赴朝參戰20周年宴會上的講話」 1970년 10월 25일.

5. 중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북·중의 협력

1971년 여름, 닉슨 대통령의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키신저가 양국 간의 적대관계를 우호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북경을 비밀 방문하게 되었고, 닉슨이 1972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제와의 투쟁을 강력히 옹호해온 북한 지도부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 중국의 승리라고 발표했다. 중미정상회담에 대하여 북한은 '미제'에 공격의 표적을 돌렸을 뿐, 중국의 타협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았다. 1971년 7월과 10월 저우언라이와 키신저의 회담, 1972년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닉슨, 키신저 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저우언라이가 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협상을 벌일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미국 측은 수동적으로 대응하긴 했지만, 대체로 회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 철수 후의 공백을 일본자위대 군사력으로 메우지 않을 것, 그리고 유엔에서의 남북의 평등한 대우 등이 합의되었다⁷⁴⁾. 정상회담기간에 중국은 북한에게 중미회담의 내용을 설명하고, 중미회담에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회담기간 중에 중국은 북한 지도부와 긴밀한 회담을 통해서, 중미회담에 둘러싸고 사전협의와 사후통보를 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였다.

<표 1> 문화대혁명 전후의 북·중 정상회담 (1964-1972년)

연 월	장소	회담주체	회 담 주 제	비 고
1964년 11월	북경	김일성 :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소련 신지도부 분석(중소분쟁), 베트남문제, 핵기술이전문제(추정)	비공식 베트남방문,
1969년 9월 10일	북경	최용건 : 저우언라이	소련의 아시아집단안전 보장체제 반대	호치민 장례식 (9월 2일) 저우언라이 : 호시킨
1969년 9월30일 - 10월 2일	북경	최용건 : 마오쩌둥, 린바오, 저우언라이	관계정상화, 국제정세	중국건국 20주년 공식방문
1970년4월5일-7일	평양	김일성 : 저우언라이	관계정상화, 국제정세, 북중관계, 문화대혁명, 중소분쟁	공식우호방문
1970년 10월8일-11일	북경	김일성 :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관계정상화, 국제정세, 양국관계, 중소분쟁	비공식

74) 「黃永胜總參謀長在首都人民紀念中國人民志願軍赴朝參戰20周年大會上的講話」 1970년 10월 24일; 「曾思玉團長在平壤市群眾大會上的講話」 1970년 10월 24일; 「李先念副總理在朝鮮駐華大使玄峻極舉行的紀念中國人民志願軍赴朝參戰20周年宴會上的講話」 1970년 10월 25일.

75) 미국 정부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는 2001년 4월 닉슨 대통령의 통치사료 가운데 1971-1972년에 진행된 닉슨, 키신저, 마오쩌둥, 주은래 사이의 비공개 회담 기록을 비밀해제 했다. 닉슨 행정부는 박정희정권과 사전협의를 물론 사후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미정상회담을 요청하였는데 닉슨 행정부는 거절하였다. 중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는 박종철c(2007), pp. 206-219.

V. 결 론

냉전시기의 북한과 중국의 혈맹(Blood-forged Alliance)은 긴장과 협력이 병존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의 이데올로기 갈등에 따라서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격하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대표자대회 등에서 중국에 대하여 반격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논쟁은 중국내 조선인의 문화혁명, 중국의 대북원조의 감소, 북소 관계개선과 군사협력 등의 국가이익의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북중갈등에 조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1968년 초반의 푸에블로호사건과 미군정찰기 격추사건을 둘러싼 북미갈등에 대하여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미온적이지만 지지하였다. 1969년 4월 중국공산당 제 9차 전당대회의 정치보고에서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한다고 선언하면서 북한과 중국간의 접근을 추진되었다. 3월 전바오도 중소군사출동로 인하여 중소관계가 악화되어, 5월 소련의 포드고르니가 전바오도의 충돌을 둘러싸고 반중캠페인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였지만, 북한지도부는 소련에 동조하지 않았다. 더욱이 9월 코시킨의 북경방문에서 ‘아시아집단안전보장구상’에 대하여 제안하였지만, 저우언라이와 최용건의 북경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행사를 둘러싸고 중국지도부는 북한대표단을 극적으로 초청함으로써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 4월 저우언라이의 평양방문, 10월의 김일성의 북경방문에서 양당·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었고, 연합공보를 통하여 관계정상화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이후 1971-1972년의 중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은 협력하여 혈맹의 회복을 과시하는 듯 했다.

북한의 주체노선과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좌경화 노선에 따라 북한과 중국이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양당·양국관계는 악화되었다. 북중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의 증폭됨에 따라서 국가이익의 분야까지 갈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북한과 중국의 안보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봉합된 것이다. 서방국제정치이론의 동맹관계는 ‘적과 동지, 정치적 가치, 경제체제 등의 면에서 서로 이해를 같이 하며 그 국가들은 서로 우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북중관계정상화는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달성되었지만,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북중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국가이익에 의하여 봉합되고 내재화된 것이다. 문화대혁명과 관계정상화를 둘러싼 북중관계는 지정학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동맹이 유지되었지만,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병존하는 ‘긴장된 동맹(The Strained Alliance)’ 혹은 ‘적대적 동맹(The Alliance despite Antagonism)’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회고록, 연보, 연감>

『조선중앙연감』.1970.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북한총람 1945-1968』.1968. 서울 :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람 1945-1982』.1994.서울 : 북한연구소.

황장엽.2006. 『황장엽회고록』.서울 : 시대정신.

이한영. 2004. 『김정일 로열패밀리』. 서울 : 시대정신.

『周恩來年譜1949-1976 (下)』.1997. 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1949-1975』. 1993. 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정세보고>

통일연구원편집부. 2006.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도서출판선인.

-- 국제교류과(베를린).1966/12. 「B805/219 조선노동당 사절단과의 대담을 위한 참조사항」.

-- 평양주재무관(평양).1967/9/27. 「49 03 01 북한의 군사정치학 발전 동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독일민주공화국(평양).1968/3/27. 「1968년 3월 23일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협의에 관한 메모 (11시 - 14시 40분)」.

-- 야르크 1등 서기관(평양).1969/2/6. 「1968년 북한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보」.

<연설문, 전보>

「我党政領導人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18周年致朝党政領導人的賀電」. 1966/9/8.

「周恩來總理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19周年致金日成首相的賀電」.1967/9/8.

「周恩來總理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20周年致金日成首相的賀電」.1968/9/8.

「周恩來總理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21周年致金日成首相的賀電」.1969/9/8.

「我党政領導人慶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成立22周年致朝党政領導人的賀電」.1970/9/8.

「朝党政領導人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17周年致我党政領導人的賀電」.1966/9/30.

「金日成首相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18周年致周恩來總的賀電」.1967/9/30.

「金日成首相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19周年致周恩來總的賀電」.1968/9/30.

「金日成首相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20周年致周恩來總的賀電」.1969/9/30.

「朝党政領導人慶祝中華人民共和國成立21周年致我党政領導人的賀電」.1970/9/30.

「中朝兩党, 兩國領導人講話匯編」. 1991/5.

-- 「金日成同志在平壤機場歡迎儀式上的講話」.1970/4/5.

-- 「周恩來總理在平壤機場歡迎儀式上的講話」.1970/4/5.

-- 「周恩來總理在平壤機場歡迎儀式上的講話」. 1970/4/5.

-- 「周恩來總理在金日成首相舉行的歡迎宴會上的講話」. 1970/4/5.

-- 「金日成同志在歡迎周恩來總理的宴會上的講話」. 1970/4/5.

- 「周恩來總理在金日成同志舉行的歡迎宴會上的講話」.1970/4/5.
- 「金日成同志在平壤機場歡送儀式上的講話」.1970/4/7.
- 「周恩來總理訪問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文出版社.1970.
-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4.
- 「李先念副總理在朝鮮駐華大使玄峻極舉行的紀念中國人民志願軍赴朝參戰20周年宴會上的講話」. 1970/10/25.
- 「黃永勝總參謀長在首都人民紀念中國人民志願軍赴朝參戰20周年大會上的講話」. 1970/10/24.
- 「曾思玉團長在平壤市群眾大會上的講話」. 1970/10/24.
- 「李先念副總理在朝鮮駐華大使玄峻極舉行的紀念中國人民志願軍赴朝參戰20周年宴會上的講話」. 1970/10/25.
- 「中華人民共和國聲明」. 1968/1/28.
-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聯合公報」. 平壤：1970/4/7.
- 「謝富治副總理在朝鮮駐華臨時代辦舉行的招待會上的講話」.1969/9/8.

<논문, 연구서>

- 이중석. 2000. 『북한-중국관계 : 1945-2000』. 서울 : 중심.
- 염인호.2006/06. 「중국 연변 문화대혁명과 주덕혜의 실갈-북한 특무 혐의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2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경일. 1994. 『중국조선족문화론』. 중국 심양 : 료녕민족출판사.
- 김창순 편. 1978. 『북한외교론』. 서울 : 북한연구소.
- 박종철a. 2007/04. 『演變中的中朝關係研究 : 走出血盟』. 北京 :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
- 박종철b. 2007/12. 「순망치한의 혈맹 : 중국의 북한지원을 중심으로」 『전북대 사회과학연구 제31집』.
- 박종철c. 「문화대혁명에서 중미정상회담까지의 북조선중국 관계에 대한 연구」. 『차세대 워크샵 논문집 제1집』. 일본 교토.
- 박종철. 2008/03.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에서의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연구」. 『군사사연구총서 제5집』.
- 寺谷弘子저, 이영우 역. 1983. 『소련의 내외정책』. 양영각.
- 堀田幸裕.2002. 「文化大革命初期に發生した中朝關係の惡化について (1966-1970年を中心に)」. 『中國研究月報』.No.658. 中國研究所.
- 王泰平主編.1999.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 (第三卷) : 1970-1978』. 北京 : 世界知識出版社.
- 謝益顯.1995. 『外交智慧与謀略-新中國外交理論和原則』. 정재남옮김. 『신중국 외교이론과 원칙』. 아세아문화사.
- 中國國家博物館編著.2006. 『共和國領袖故事 : 周恩來』. 上海教育出版社.
- 平岩俊司. 1999. 『北朝鮮 · 中國關係の歴史的變遷とその構造』. 慶應義塾大學博士論文.

- 下斗米伸夫. 2004/09. 『アジア冷戦史』. 東京：中央公論新社. 이혁재 옮김. 2005/01. 『북한정권탄생의 진실』. 서울：기파랑.
- 歐陽善 (中國中連部アジア局) 著. 富坂聰編. 2007/09. 『對北朝鮮・中國機密ファイル』. 東京：文芸春秋.
- 라리사 자브로우스카야. 2000.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의 안보」.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편저. 박명서, 정지웅 옮김. 『북한 핵 프로그램』. 서울：사군자.
- 中國國家博物館編著. 『共和國領袖故事：周恩來』. (上海教育出版社, 2006年).
- 吳冷四. 『十年論戰1956-1966中蘇關係回憶錄』. (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9年).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Normalization of Sino-North Korea Relations(1969-70)

Park, Jongchol⁷⁶⁾

The historical fact of Sino - North Korea relationship has rarely been disclosed. Especially during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GPCR), study in regard to the conflicts and normalization between two countries don't exist till now. Recently some documents disclosed in China, this study aims at rebuilding historical facts concerning the process of normalization between two countries during that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as broken during GPCR because of conflicts of ideology, but considering national interest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aids look for political normalization.

The end of 1960s, china domestically took measures to correct mistake of the extreme left. Changing world situation such as military engagement in border of Sino -Soviet, security dialogue between US-Japan, the Pueblue accident etc , Norh korea and China individually recognized increasing security threats.

That's why the two parties and nations made decisions to security corporation. In particular,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was achieved throughout country and party leaders. Although North Korea and China experienced in ideological conflict regard to GPCR, two Countries achieved normalization regard to national interest.

■ 논문접수일 : 2008년 4월 10일, 논문심사일: 2008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5월 26일